

서론 :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PART 0. 서론 :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한 이해

단순히 여러 작품을 접하고 문제만 많이 푼다고 느는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양치기가 되지 않는 것이 국어이며, 그중에서도 문학이 단연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서 나오는 소위 '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능에서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감으로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 도박일 테니까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서는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그 기준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책을 통해 표준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그 전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독해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경지에 오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독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문제 풀 때 정답 선지가 바로 보인다 → 문제 풀이 시간 ↓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의 경우 독해 시간이 주로 문제로 꼽히는데, 장면 별로 독해가 가능해지면 문단마다 핵심 키워드만을 추출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소설류도 4-5분 내 풀이 가능

이 모든 방법의 근간은 **“문학 작품을 읽고 ‘단 한 줄’로 요약해내는 것”**이며, 그러한 요약이 가능해지기까지 필요한 단계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Step 1, 4가 준비 단계, 나머지는 실전에서 적용하는 것이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 평가원의 정답 선지는 ‘반드시’ 주제로부터 나온다

이는 독서와 문학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분야 모두 한 줄로 요약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약한 내용에 주제가 온전히 담기면 그 한 문장으로든 문제가 모두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 작품의 출제 Point는 그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어 이 작품이 수능에 나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작품의 고유성을 알려주는 문학사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인이 찾아낸 독창적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의미상일 수도, 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지문이 이번 시험에 나왔는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지문의 Best 문제는 필연적으로 문학사적 의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야 오류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원의 정답 선지는 굵직한 문학사적 의의에서 출제된다는 걸 독해 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특이점, 문학사적 의의인지 앞으로 찬찬히 봐봅시다. 그 전에 추상적으로 들렸을 이러한 얘기를 비교적 최근인 23 수능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번 위력을 봐볼까요?

23 수능의 (나) 작품인 <음지의 꽃 _ 나희덕>입니다.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 [A]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 [B]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 [C]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 ... [D]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 [E]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F]

참나무는 썩지만, 그 참나무를 영양 삼아 새로운 생명인 버섯(음지의 꽃)이 피어나는, 자연이 보여주는 순환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참나무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버섯의 생명을 이끌어오는 모순적인 순환이며 이것이 바로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찌 나왔을까요.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주제가 뭐였죠? _ ‘참나무의 죽음으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자연의 순환적 아름다움’
→ ①이 손을 내밀고 있군요.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33. [A] ~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주제를 외쳐볼까요?

‘참나무의 죽음으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자연의 순환적 아름다움’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완벽하게 ②번 선지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그냥 정답이 보여요.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만으로 편집함]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 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①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보기>와 기존에 우리가 찾은 주제를 합쳐서 보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죽은 참나무로부터 새로 탄생한 버섯이 보여주는 강인한 생명력’
(인간에 대한 비판과 자연에 대한 예찬)

→ ③ :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는 인간이고 ‘홀씨’는 자연이므로 비판과 예찬이 섞임 (X)

방금 보신 것처럼 잘 요약한 한 문장은 모든 문제의 정답 근거가 됩니다.

결국 정답 선지는 주제에서 나온다는 평가원의 출제 원리가 잘 반영되었습니다. 모든 평가원 지문과 수능 문제에서 이를 벗어났던 적은 없고, 수능 국어인 이상 이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정 지문에서 최선의 문제를 내려면 저 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한 줄로 잘 요약하기 위해서는 시 내용을 주제만 쏙쏙 알아내는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컴팩트하게 핵심만 챙기려면, 역설적으로도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COMPACT>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세히 해본 사람만이 저게 가능하며, 수능에서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rt 1을 통해 아주 세세히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독해력이 좋아서 Part 2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art 1을 했다고 전제하고 서술했기도 하고, 절대적으로는 독해력이 좋은 편이지만 제가 원하는 독해력의 수준에는 못 미쳐 괴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Part 1은 혼자서 해야 하는 분석을 여러 질문들을 통해 저와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art 1에서 하는 것들은 문학의 기본이자, 문학에 대한 안목을 높여줄 여러 장치들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제가 해설에서 제시해가는 내용들에 의문을 가지고,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보는 작업을 거쳐주시면 좋을 거예요!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밝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 는 인간 의 삶을 반영 한다. 시 에서 반영 은 현실 과 인생 을 모방 한다는 의미 에서 외부 현실 을 시 속에 담아 내는 것으로, 역사 와 현실 의 상황 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 할 것 인가에 초점 을 둔다. 여기서 반영 은 ‘있는 [A] 그대로 의 현실’ 로서 의 반영 과 ‘있어야 하는 현실’ 로서 의 반영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 는 역사 와 현실 의 모습 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 적 진실 을 반영 하는 것을 말 하고, 후자 는 일상 적 현실 을 넘어 화자 가 지향 하는 당위 적 진실 을 반영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 라는 형식 을 통해 시 그 자체 를 반영 하는 특수한 경우 도 있다. 이때 반영 의 대상 은 외부 현실 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 이나 시를 쓰는 시인 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 로 시론 혹은 시인론 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 의 작품 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 의 글 로 표상 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 들은 시 속에 형상화 된 세계 를 통해 인간 이 지향 해야 할 바람직한 삶 의 방향 을 모색 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 해야 하고, 시인 은 어떤 존재 로 살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자기 성찰 의 태도 를 드러 내는 것이다.

• Check List •

(가)

1. ‘강 건너’는 긍정적 공간이다. (O/X)
2. ‘노래’는 무엇을 뜻하는가? ()
3. ‘밝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라는 시구의 뜻을 쓰시오.

(나)

1. ‘묘비명’은 바람직하다. (O/X)
2. 이 시에 드러난 ‘현실, 이상’을 각각 서술하시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 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3.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이 세트는 (다)가 사실상의 <보기> 역할을 하므로 (다)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문단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 즉, 시론적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작품에서 어떻게 시가 표상되었는지 찾으라고 (다)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이는 제목에 있습니다. (가)는 강 건너간 노래, (나)는 묘비명이라는 갈래의 글이 바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시에 대한 시 쓰기' 즉, 시론 성격의 시는 주목할 만합니다. 시론적 성격의 시란, 시인으로서 앞으로 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자기 성찰적 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나, 시인을 화자로 넣어서 읽으면 독해가 쉬워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이 하는 활동인 시 쓰기에 대한 반성이므로 당연히 본인에 대한 성찰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시인 자신의 삶이나 가치관이 이러한 시론적 성격의 시에 반영되기에 유명한 시인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그 시인의 시론적 성격의 시는 매우 독해를 쉬이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히 세 명을 살펴봅시다.

시론적 성격의 시로 유명한 대표적 시인들과 그 특성 _

- 1) 이육사: 결연한 의지를 지녀 반드시 문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성찰이 자주 드러남.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의지가 어딘지 찾아.
- 2) 윤동주: 단순한 무관심이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방관에 대한 성찰이 자주 드러남.
따라서, 무엇에 대한 무관심이고, 방관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어딘지 찾아.
- 3) 김수영: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과 만족으로 인한 나태에 대한 성찰이 자주 드러남.
따라서, 소시민으로서의 안정과 만족을 뒤엎는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 어딘지 찾아.

다시 (다)로 돌아가자면, 결국, (다)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시에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시인의 소명임을 이 두 시에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현대시들과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제시한다는 것'에서는 유사하지만, 시론적 성격의 시인 이 두 시는 특히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경계 대상인지를 시인이 시로써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시의 문학사적 의의 즉, 왜 출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이며 우리는 이 (다)를 출제자의 의도로 삼아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풀이는 part 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긴 하지만, 제 문제 풀이의 모든 근원은 여기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문학에서는 ‘문학사적 의의’이며, 모든 문제는 이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차차 알아가 봅시다! 일단 Part 1에서는 시 독해만 제시하겠습니다.

<시 독해>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항상 시 초반에서는 시적 상황을 구체화해야 한다.
 시간: 밤 / 공간: 앞내강
 → 내가 부른 노래가 강 건너
 + 이 대목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내가 부른 노래'
 에 시인을 대입해 '이육사가 쓴 시'로 해석 가능

다시 한 번 메모합시다. '시론적 성격의 시의 화자에는 '시인'을 대입해보자'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잠깐 여기서 '현실'과 '이상'을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과 이상 찾기

'현실'을 찾는 방법은 '화자와 동질적이고, 화자가 차별성을 추구하는 시어'를 찾는 겁니다.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우리와 공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인데 (화자와 동질적 이고,) 마음이 들지 않아서 달라지고 싶은 것(차별성을 추구하는)을 말합니다.

'이상'을 찾는 방법은 '화자와 차별적이고, 화자가 동질성을 추구하는 시어'를 찾는 겁니다.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다른 '이상'을 선망하고 추구합니다. 따라서 화자와 다르면서 (화자와 차별 적이고) 똑같아지기를 바라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한 번 밑의 시에서 연습해봅시다. ('동질성'과 '동질성 추구'는 전혀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

ex 22 06 김기림, 「연륜」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가자' _ 화자가 동질성을 추구함 ∴ '이상'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불꽃처럼 살리라' _ 화자가 동질성을 추구함 ∴ '이상'

위에서 연습한 것처럼 다시 원래 (가)의 구절을 읽어봅시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이라는 곳으로 이육사의 노래(시)는 제비처럼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 노래는 제목의 '강 건너간 노래'이자, 이육사가 추구하는 '시'이므로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을 나타내는 대표적 시어

주로 자연과 관련된 시어들입니다. 이 시어들이 나오면 우선 이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약 이 시어들이 이상으로 쓰이지 않으려면,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야 하기에 명확히 부정적 표현과 결합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어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살피면 됩니다.

→ 하늘 / 산 / 해 / 달 / 별 / 바다 / 강 / 섬 / 무지개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앞서 예시로 나온 김기림의 <연륜>에서 섬이라는 시어가 '이상'이라는 것과 지금 읽고 있는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에서 '하늘'이라는 시어나 '별'이라는 시어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독해가 쉬워집니다.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강 건너의 사막은 '계집애'가 집 없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노래'가 가기는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래는 왜 계집애가 집 없는 사막에 간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시인의 시란 모름지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에서 노래는 계집애를 위해 강을 건너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 사막이라는 곳은 단순히 계집애가 집이 없기만 한 곳이 아니라, 강력한(?) 모래불이 있는 공간인가 봅니다. 이육사가 부른 노래라고 하더라도 제비처럼 날아갔다가 날개가 지치면 떨어져서 타버리는 무시무시한 공간이네요.

아아... 도대체 어떻게 저 구절을 보고 '시인의 시란 모름지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를 알 수 있나요?

<보기> 역할을 하는 (다)에서 알려줬습니다. 이 시는 어차피 '시인이 시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쓴 시라고요. 그러니 시의 모든 구절을 그에 맞게 독해해야 합니다. 아예 맨바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기>의 내용에 근거해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사막이라는 공간은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은 앞서 서술했던 대표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시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 ‘별’ 즉, 이상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슬픈 상황일까요... 당연히 이상이 현실과 괴리가 일어난 상황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별들이 ‘노래’의 죽음에 눈물 흘리며 슬퍼한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노래’가 이상적인 시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이상적이지 않았다면, 즉, 별과 배치되는 시어였다면 노래가 죽으면 별은 신나했겠죠? (너무 인성 파탄인가요...)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물었다면, 이 현대시 세트의 난도는 극악을 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상하기’가 있습니다. 과감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상상 모드 ON

‘밤’이라는 친구와 ‘무지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충 사람 상상하고 머리띠에 밤과 무지개라고 적어줍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뜨개질 얘기를 하다가 서로 잘한다고 경쟁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때 ‘밤’ 친구가 ‘무지개’ 친구한테 ‘쫄?’을 외칩니다. 그래서 둘의 뜨개질 배틀이 성사되었습니다. 근데 이 뜨개질은 평범한 뜨개질이 아닌가봅니다. 실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옛일’을 짜낸다고 하네요. 어쨌든 둘의 대결 결과, 누가 이겼나요? ‘밤이 무지개보다 곱게 짜냈습니다.’ 아아, 밤이 이겼네요.

상상 모드 OFF

이제 시어에 적절한 의미를 넣어봅시다. 옛일 (추억)을 밤(부정적 시간)이 무지개(이상을 나타내는 시어)보다 더 잘 짜낸다고 합니다. 추억을 밤이 무지개보다 잘 미화한다고 합니다. 아...?

추억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 예쁘게 그려진다.

이 뜻이었네요. 연습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단기에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시를 충분히 독해하시고 이 해설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한 사고의 흐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독해를 제대로 한다 (밤이 무지개보다 옛일을 더 잘 짜냄). 그 후, 시어에 의미를 대입한다 (밤에 부정적 시간, 무지개에 이상, 옛일에 추억). 그리고 문장을 정제한다.

어쨌든, 밤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오히려 옛일을 잘 짜낸다는 얘기와 함께 노래가 나옵니다.

한 가락은 여기 두고 한 가락은 또 어디다가 돌지 고민된다 하네요. 그리고 분명히 죽었던 노래가 다시 강을 건넌다. 이육사가 또 노래를 불렀나봐요. 그러면 크게 시의 전개를 다시 봅시다.

노래가 강 건너감 for '계집애를 달래주러' → 사막에 도착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노래 타 죽음 → 별들이 울어줌 → 그렇지만 밤은 무지개보다 오히려 옛일을 잘 짜내줌 → 이에 이육사는 다시 노래를 부름.

우리 아까 정리했던 **이육사의 시론적 성격**에 대한 태도를 가져와 봅시다.

1) 이육사: 결연한 의지를 지녀 반드시 문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성찰이 자주 드러남.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의지가 어딘지 찾자.

우선 문제 상황은 찾기 쉬운 것 같습니다. 노래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모래불의 사막.

그렇다면, 이 시에서 이육사의 결연한 의지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나요.

‘밤’이라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밤이 옛일을 떠올리기 더 좋다고 말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음.

부정적 시간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내 다시 노래를 부름.

→ 시인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상’을 노래해야 한다는 이육사의 소명이 드러남.

이게 바로 이 시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문제에서 물을 겁니다.

이렇게 시를 보고 왜 이 시가 출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문학에서 가공할 만한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문제 풀이에 대한 해설에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분석해야 하나요? 네. 수능 당일에 이 정도의 분석을 즉석에서 해내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연습할 때는 이 정도 분석을 해주셔야지 근본적인 문학 독해력이 증진됩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한두 개씩 제 해설과 본인의 분석이 비슷해질 겁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가) 시는 결국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시를 계속 쓰는 것이 시인의 소명이다’라는 이육사의 시에 대한 견해로 정리되네요.

(나)의 시는 간단하기에 컴팩트하게 독해해볼 겁니다. 해봅시다.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시는 언제나 ‘문장 단위’로 읽어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역시나 시의 도입부에서는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학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 부자, 높은 자리까지 오름
그리고 그가 남긴 ‘훌륭한 비석’

이 시는 (다)에 따르면, 분명히 시인이 시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였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는 이유로 그가 남긴 비석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기이함을 이 지점에서 느끼셨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비석은 결국 묘비였군요. 묘비명이 제목만큼 묘비명의 내용이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묘비명의 내용은 유명한 문인이 적은 ‘그’를 기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묘비는 세상이 잘못되더라도(잿더미가 된다 해도) 곳곳이 남아 후세의 사람들에게 사료로 여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은 ‘아, 당시에는 문학에 대해 문외한이여도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최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문학은 쓸모없는 걸까요?

이 질문이 구체화되어 시구로 나옵니다.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요. 시인은 어떤 시를 써서 역사에 남아야 할지에 대한 고찰이 드러난 시입니다. 시론 입장에서는 이 유명한 문인이나, ‘그’나, 훌륭한 비석이나 모두 달가운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시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시어들이므로 ‘이상’보다는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나)는 과연 ‘시가 왜 쓸모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드러난 부분들도 각 시에서 체크해봅시다.

우선, (가)의 경우 ‘이상’인 ‘노래’가 죽는 부분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일 겁니다. ... ㉠, ㉡
(나)의 경우에는 ‘현실’인 묘비명과 그와 문인이 마치 ‘이상’인 양 훌륭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일 겁니다. ... 시 전반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지점과 각 시의 주제를 기억하고, 문제를 살펴봅시다.

(가): ‘힘든 시기에도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시를 계속 쓰는 것이 시인의 소명이다’

(나): ‘시가 왜 쓸모 있는가’에 대한 물음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 공통된 주제, 혹은 주제를 나타내는 방식을 묻는 문항

이는 (다)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른 갈래의 글로 표상된 ‘시’의 바람직한 모습이 제시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 중에 이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시적 대상 → 강 건너간 노래와 묘비명 / 의지를 지닌 존재 → 시란 어떠해야 하는가의 모습 ((가)의 경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 강을 건너는 노래, (나)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묘비명이 후세에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시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반성하게 만드는 곳곳한 비석)

2번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한 [A]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묻는 문항

아까 미리 골랐던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관한 부분은 바로 ㉠, ㉡이었습니다. 특히, ㉡은 이상적 존재인 별이 눈물 흘리는 완벽한 ‘괴리’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술한 4번 선지를 확인해봅시다.

㉡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이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절망적인 괴리 부분인데 이를 희망적으로 표현한 4번 선지는 명백히 잘못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서술하겠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오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있을 경우, 대부분의 답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지점입니다. (ex 22수능 현대시 이육사 <초가>)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개념어는 ‘태도 변화’입니다. 문학에서 ‘태도 변화’가 답이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Step 3. **자아와 세계**에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대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관통하는 개념이므로 후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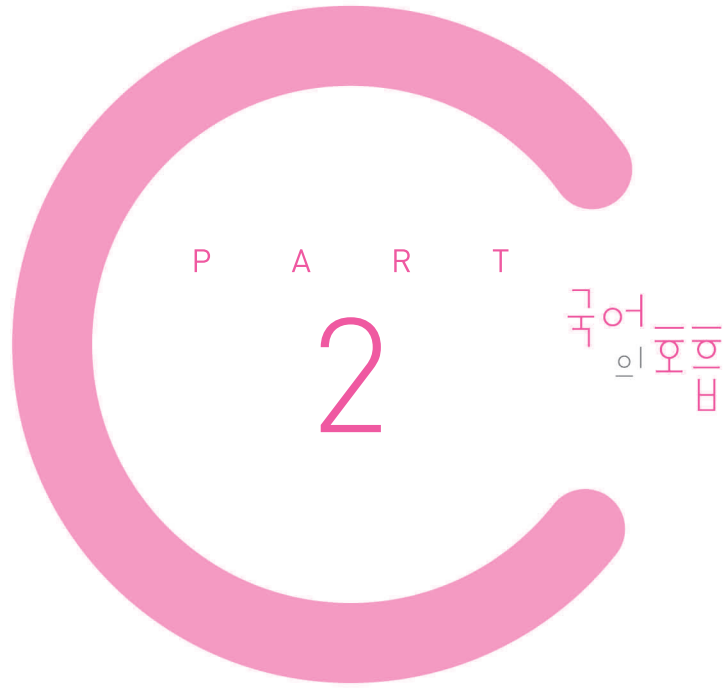
3번 각 작품의 주요 제재인 노래와 묘비명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 주제를 직접 묻는 문항

이미 우리는 (가)와 (나)의 주제를 알고 있기에 너무 쉬이 풀리는 문항입니다. 실제로, (나)의 주제는 묘비명의 모습을 시의 바람직한 모습인양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괴리감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시란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하는 시였으니까요. 이러한 시인의 의도를 이 선지는 무시합니다.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묘비명은 시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게 맞는 거 같아?’라고 우리에게 묻는 시였으니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가 현재 **주제**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체감할 수준으로 직접 분석하고, 제 해설을 읽어주시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P A R T
2
국어의 흐름

현대 문학의
주제별 탐구

Part 2에서는 Part 1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 문학에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Part 1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Part 2에서는 여러 주제 즉, 클리셰들을 세세히 뜯어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Part 1을 숙지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성찰

현대시, 현대소설과 같은 문학 갈래는 이전의 다른 문학에 비해 아주 강력하게 '내면'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성찰'은 그 점에서 현대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찰 :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결국 '현재 자신의 내면' / '과거의 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내면은 한 개인의 '이상'을 만들어내고, 그 개인이 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괴리]**를 찾아내는 주체입니다. 성찰은 그러한 괴리를 찾으려는 과정이며, 자아에게 책임을 묻거나 해결책을 찾으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는데 예시와 같이 봅시다.

재수생 A : '아, 작년 수능 전에 게임만 안 했어도 잘 봤을 텐데, 그때 왜 게임을 했지?
난 자제력이 약한 편인가봐. 하..'

자신의 과거 내면 - 수능 때 게임을하기로 선택한 자아
과거의 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결과 - 게임으로 인해 수능을 망침
현재의 내면 - 과거를 후회하며, 의문을 통해 자신의 자제력을 판단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자아는 성숙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성찰을 한다고 무조건 해결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반성'이 있으나, 둘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반성은 성찰의 일종입니다. 반성이란 자기 언행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켜보는 일이므로, 잘못을 고치는 것에 치중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찰 중에서도 '반성'은 자아가 성장하기 좋은 성찰인 겁니다. 특히 현대시의 특성상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 자신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외부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을 하면 자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외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체념과 극복은 평가원 선지에서 갈래를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찰과 반성은 극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아가 문제 상황 즉,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마주하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두 가지입니다. **[체념] & [극복]**

[체념]은 성찰을 해보아도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을 때나 문제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극복]은 성찰을 해본 결과 해결책이 나왔고 자신이 그걸 행할 능력 또한 충족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찰을 해본 결과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체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자아를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므로 현대시에서는 극복만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외부 상황에 억압을 당할 때만 체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문항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
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
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Quiz 1. 성찰이 드러난 곳을 찾고, 성찰의 내용을 적어
보자.

Quiz 1-1. 동굴의 역할과 효과는?

Quiz 2. 2연과 5연의 성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조적, 의미적으로 적어보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
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
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
이고, 하늘을 향해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
(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
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
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보기>에서 우물은 여러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 1)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볼 수 있다 → 성찰을 할 수 있는 공간
- 2) 하늘을 향해 있으며 → 하늘(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는 공간
- 3) 동굴의 원형(prototype)인 모태를 떠올리게 한다 → 태어날 때 즉, 원초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공간

마지막으로, 우물에 비쳐 만들어진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성찰 결과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인식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아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과’가 나오므로 당연히 슬래시를 쳐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제목의 경우 ‘우물’과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물에 담긴 그림의 의미가 곧 주제라는 얘기일 테고,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 그림에는 화자의 성찰 결과가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시론적 성격의 시나 성찰에 관한 시는 주로 화자가 시인 그 자체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리하자면, <보기>만으로도 ‘운동주가 자신에 대해 성찰한 결과를 여러 단계에 걸쳐 이성적, 감성적으로 서술한 시’라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성찰은 주로 [고독함]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집중해야 하므로 외면적으로는 다른 신경을 쓰지 못해서입니다.

우물은 우리가 <보기>에서 알아낸 것처럼 이 시의 주제와 밀접하므로 우물 안을 신경쓰며 나머지를 읽어봅시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것들을 나열해봅시다. 밝은 달 / 구름 / 하늘 / 파아란 바람 / 가을
종합해보면 화자가 있는 배경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달무리가 살짝 낀 어느 가을 밤

그런데, ‘파아란 바람’은 도대체 뭘까요. 애초에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Step 3. **자아와 세계** 개념을 사용해보자면 정말 파아란 바람이 있다기보다는 화자가 바람을 보고 파란 것처럼 여겼다는 게 훨씬 자유로워 보이네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니 봐줍시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물 속에는 배경뿐만 아니라 자신도 있겠죠. 그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인식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태도 (부정적)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아 자신의 모습이 성찰 결과 그리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배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속의 자신은 이상에 걸맞지 않나 봅니다. 역시 현대시인지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 태도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인식

그렇다고 자신을 미워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보기>에서 말한 대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있네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며 다시 우물 앞에 섭니다. 즉, 성찰을 다시 해보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증오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와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성찰을 해보며 좀 더 깊은 내면에 도달한 겁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 인식을 통한 태도

우물을 들여다보니 다시 자신이 미워지지만, 우물에서 멀어져 다시 생각해보니 가엾던 연민이 발전해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찰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상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밍게 느껴지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시에서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모습일 텐데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문제 풀이에는 상관없을 정도로 답한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문학 공부에서 의문을 던져봐야 하는 심도로 접근하려 합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깊게 해주어야 시험은 알게 느껴져 쉬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보기>에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동굴의 역할 중 1, 2번째만을 사용했습니다. 3)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임을 안 사용했습니다. 모태는 어머니의 배 속 태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결국 화자는 우물을 통해 모태의 모습 즉, 자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이 시에는 전혀 자신의 모습 중 이상에 가까운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오직 <보기>에만 존재하니 귀류법에 의해 모태의 모습을 그리워한다는 추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시를 접근했죠. 이처럼 문학은 사실 독서보다도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면 문학 파트 문제를 아주 빠르고 정확히 맞출 수 있는 한편, 독서 점수도 자연스럽게 오를 겁니다.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서 마지막 연을 확인해봅시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2연의 구절과 거의 비슷하나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우물 속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우물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납니다. 2연에서는 분명 가을에서 끊기고 다음 연으로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나누었지만 5연에서는 붙였기 때문이죠.

파아란 바람은 결국 여기까지 읽어본 결과 이상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데에 쓰인 표현에 불과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사나이가 풍경과 어우러지게 되었으며, '추억처럼'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면 완전히 이 시의 주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이상적 풍경과 어우러진 걸로 보아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라도 이상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연에서 본 것처럼 화자는 성찰의 결과 자신이 그리워하는 모습 즉,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모태의 모습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추억'이라고 지칭할 만한 과거의 모습이 이 시에 드러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태겠죠.

화자는 계속해서 내면을 들여다 본 겁니다. 처음에는 가장 꺾대기를 보았고, 단순히 이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하나 더 깊은 내면에서는 연민을, 그리고 제일 속 내면에서는 자신의 원초적 자아인 모태에서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그리워합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변 풍경 즉, 이상을 상징하는 모습과 자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한데 모아 확인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나름대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잠시 스톱. 물론 엄청 깊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맞긴 하나, <보기>에서 워낙 많은 정보를 주었기에 가능한 난도입니다. 실제로 예전 평가원 지문에서는 이리 어려운 난도를 출제한 적이 있었기에 공부할 때는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따라오세요...!

중요한 것은 성찰에 관한 시 중 이 시가 가장 난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그 이후에는 다른 성찰에 관한 시는 이 시에서 했던 행동 중 일부일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시를 통해 앞으로 다른 시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반화를 해내셔야 국어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 성찰에 관한 시 매뉴얼 •

- 1) 시선이 외부가 아닌 내면을 향하면 성찰에 관한 시임을 알아채자 (주로 <보기>가 알려줌)
- 2) 화자가 성찰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깨달음을 알아내는 것이 제 1의 목표임을 기억하자
- 3) 성찰이 진행되면서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어찌 달라지는지 확인하자
- 4) 시의 초반과 후반 상황을 비교해보며 달라진 점으로부터 깨달음을 추출하자